

불교사전 주제별 편찬 활발

선·사찰·설화·인물·상식백과등... 전문성 돋보여

불교관련 사전 목록표 ('표' 근간)

사전명	저·편자	출판사 (출판년도)	배열어사전(상.하)	전제성	한국불교대(94)
불교사전	윤하	동국여경원(61)	불교상식백과(상.하)	홍사성	불교시대사(93)
불교대사전(정7권)	권찬위	명문당(82)	한국불교인명사전	이정	불교시대사(93)
불교학대사전	권장부	홍명당(88)	화엄경소사전	무비	민족사(94)
불교사학대사전(상.하)	조명기	보림각(91)	불교용어사전	안길모	김종출판사(93)
한국사찰사전(상.하)	권상로	이화문화(92)	가산불교대사전*	권찬위	가산불교연구원(95)
설화대사전(상.하)	한정식	이화문화(91)	선학사전*	권찬위	불자사(94.12)
불전해설사전	정승식	민족사(89)	한국사찰사전*	이정	불교시대사(94.12)

불교사전을 이용한 정확한 어휘사용과 뜻풀이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글쓰기와 책읽기의 기본에 속한다. 책꽂이 한켠에 꽂여있는 불교사전이 바른 불교공부로 이끌 것임은 당연하다. 불교사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있는 사전의 한계는 무엇인가.

현재 나와있는 불교관계 사전은 10여종에 이른다. 1961년 동국여경원에서 펴낸 <불교사전>을 비롯해 지난 해 나온 <불교상식백과>까지 다양하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불교사전>(동국여경원, 윤하 지음). 불교어휘와 사찰 등 모두 1만4천여 표제어를 수록, 소항목주의 편집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61년 출간 이후 가장 많이 보급된 것으로 올해까지 27판을 펴냈다. 일본의 <모법불교사전> <선학사전> <불교대사전>, 중국의 <불학대사전>을 참조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 불교대사전>이다. 정7권으로 구성된 이 사전은 당초 보림각에서 펴냈으나, 지난해 명문당에서 증보판으로 다시 내놓았다. 7만5천여 표제어를 소항목주의에 따라 편집했다. 표제어가 가장 많으나 단편적인 풀이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제별 사전은 1962년에 권상로박사가 지은 <한국사찰사전>이 최초이다. 6천3백여 사

암의 소재지와 연혁, 사찰의 중요기사를 실었다. 본문을 한문으로 풀이하고 색인을 한자의 회색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한글세대가 보기에는 또다른 사전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90년대에 들어서며 불교계 사전편찬은 부분별 주제별 편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지금까지의 사전이 학문연구 성과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외국 성과의 옮기기였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불교학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불교학연구 사전으로 보는 <불전해설사전>을 꼽을 수 있다. 방대한 양의 불전 중에서 불교의 근본사상을 표현하고 불교발전에 공헌한 중요한 문헌들의 주요내용과 연관된 연구 및 문헌학적 정보를 망라했다. 인도 티벳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중요문헌 308개를 텍스트로 삼았으며, 특히

'보리도등론' <菩提道燈論> '티벳 불교사' 등 티벳 문헌을 실고 있어 국내외 불교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승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가 엮고, 민족사에서 89년 펴냈다.

불교학연구의 기초가 되는 외국어사전은 올해 4월 나온 <배알리어사전>을 들 수 있다.

특히 배알리어는 부처님이 직접 사용한 언어로 추정함으로써 근원불교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교상식백과>는 지금까지 집 사용된 언어로 추정함으로써 근원불교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교상식백과>는 지금까지 집 사용된 언어로 추정함으로써 근원불교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 기관)은 불교학 및 출판사가 한국문화에 일대 획을 그은 대작불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확한 전거와 이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전문사전이면서 동시에 대중적 사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 편찬의 목표이다.

사단법인 국립법장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비영리 문화사업으로 지난 83년부터 추진하는 이 사전에는 정10권(4.6배권) 분량에 한국 인도 중국 티벳 남방 알반불교 불교일단을 망라한 20만 항목의 표제어가 실린다. 제1권은 내년 초 발간될 예정이다.

올 연말 출간을 목표로 갑수 단계에 있는 <선학사전>(불자사)은 우리나라 선종사를 중심으로 선가의 용어 공간 선사 선사사찰 등의 주제별로 9천여 항목을 담을 예정이다. 용어해설과 함께 출간에 근거한 예문을 실어 소항목주의의 단

편적인 풀이를 보완한다는 편집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종사 연구 선종법계도 선서목록 공안책인 선종사지도도 부록으로 실어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불교시대사도 <한국사찰사전>을 올해 안에 펴낼 계획이다. 불교방송 조사자료부 이징 부장의 편지로 7천여 사암을 표제어로 수록해 소재지 및 소속종단, 연혁, 사찰에 얽힌 설화, 문화재, 주석했던 고승 등을 내용으로 실는다. 도별 색인과 문화재 일람을 부록으로 구성, 이용에 편리할 기하겠다는 편집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소재 사암과 주요 폐사지도 소개한다.

한편 민족사에서 무비스님 관련 <화엄경>의 부록으로 펴낸 <화엄경소사전>은 본격적인 사전편찬은 아니지만 단일 경전의 이해를 위한 공구(工具)로, 향후 경전사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불서100선

법구경

기쁨과 감동의 구절들에 매료



김양식 <시인>

생활에 필요한 윤리·도덕 담겨 친근감

허공에는 새의 발자국 없고
사문에게는 다른 뜻이 없다.
세상은 모두 함성같이 없지만
부처님만 함성 계신다.

(진구름 중에서)

바로 30년 전의 이야기이다.
내가 참으로 경이롭고 소중한 꿈을 꾸고
난 후, 불교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그 꿈으로 인하여 놀라 깨어난 직후 나는
처음으로 과연 불교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그 큰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을까
고심을 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교에 대한
지식은 물론 상식마저도 전혀 없었던 순수
한 백지였기 때문이었다.

내꿈에 세 분의 큰 스님이 나타난 나의
거처하는 방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불교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을 뻔한 내 성장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통을 느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나는 조계사 앞
에 중저어있는 불교서점을 찾았다.

내 눈에는 거기 서기에 뜻이 있는 모든 불
교관계 서적들이 하나같이 생소했다. 그러나
나 아무튼 무슨 책이고 간에 골라 읽어
했다.

어느 책이 나같은 초심자에게 맞았느냐고
책방주인에게 물었다. 그때만해도 불교관계
서적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물론 금강경 유마경 아함경 등을 다 읽
었으나 불교에 대하여 무지한 나에게는 용
기가 나지 않았다.

서점주인의 말도 있고 해서 법구경을 찾
아 펼쳐보니 참으로 오랜동안 내가 찾고
있고 듣고 싶었던 높은 가르침의 말씀들이
빛을 발하는 주옥같이 거기 새겨져 있었다.
참이하고 간결하나 매우 심오한 진리의 말
씀, 그 길은 뜻이 내게로 전달되어 내 믿음
깊은 곳에 조용히 정착하는 것이었다.

나는 법구경을 위시하여 몇권의 불교서적
을 더 사서 안고 집에 오면서 마치 금은보

화를 안고있듯 큰 기쁨과 흥분을 느꼈다. 그
리고 앞으로 전개되어갈 나의 새로운 사상
의 길을 내다보려 했다.

법구경 역시 모두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
이었다. 구절마다 나는 무한한 기쁨과 감동
에 젖었다.

또한 거기엔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데 가장 절실한 요구되는 윤리와 도덕까지
도, 특히 요즘 빈번한 거론되는 효사상까지
도 구체적으로 살피고 계실 때 더욱 친근감
이 깊었다.

나는 그 한말씀 한말씀을 글씨로써 정
독을 거듭했다. 그만큼 나는 처음 대하는 부
처님 말씀에 그대로 머무르며 깊이 흡입되
어갈수록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날 법구
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또 거듭거듭
읽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역시인 열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여보게, 저승길에 걸 가지고 가지	석용산	교려원미디어
2	도(道)	김정희	글수레
3	혼자살기엔 너무 아름다운 세상	황정원	책인도는집
4	한수경	유미환	불광
5	지혜, 도가 뭔지 아니	효림	대원정사
6	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종교	김희성	민음사
7	부처님 땅	이정범 외	불자사
8	불자예절과 의식	김길원	불광
9	만다라	김성동	푸른숲
10	부처님의 십대제자	사사기세이	우리출판사

◇구입문의 = (02)737-0895

새로 나온 책

▲**한국불교 고전명저의 세계** (김영태 지음)=신라 원효로부터 조선시대 각인(覺印)의 <동사열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고승대덕 69인이 저술한 불교명저 117종에 대한 해설서. 저자는 이 책들의 문헌사적 측면과 교리적 특성, 역사적 위치를 상세히 서술, 한국불교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렸다. 민족사, 9천원.

▲**스님, 꽃밭 날이 멀었습니다** (김정희 지음)=기자와 교직 생활을 했던 저자가 34세에 성철스님을 만나 구도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파란만장한 저자의 삶이 성철스님의 가르침으로 안정을 찾는 과정이 슬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스님, 꽃밭 날이 멀었습니다' 어쩌서 부처를 삼시 근이라 했는고 '스님 옆에 있

고 싶어서 왔습니다' 등 3부로 구성. 자유문학사, 6천원.

▲**하버드의 달리아리마** (제프리 홀킨스 역)=81년 하버드대학에서 있었던 달리아리마의 강연을 기록한 책. 불교는 리학과 인식론, 대승불교의 보살사상, 연기법, 공, 중도 등에 관한 그의 강연과 하버드대학에서 동양학과 불교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교수들과의 문답을 통해 불교는 삶에 충실하려는 가르침이며, 특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실천원리를 알려주고 있다. 김승현 옮김, 새터, 7천원.

▲**불교를 찾아가는 길** (김형중 지음)=청소년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불교전문용어를 현대의 일상언어로 풀어쓰고 불교를 서구의 철학적 논리와 대비해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불교의 가르침인 5개의 실천에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과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밀알, 4천8백원

▲**불상의 탄생** (디카디 오시무 지음)=불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숭배되었는가를 하는 불상의 출현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간다라와 마부라 미술을 통해서 살펴보고 불상의 출현이 불교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밝혔다. 인도 불교미술의 고유한 조형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엮었다. 이숙희 옮김, 예경, 7천원.

▲**물처럼 사노라면 후회없음** (윤청광 지음)=근현대 한국 불교의 대성지식이었던 경종스님의 전기소설. 16세에 삭발 출가하여 91세에 입적하기까지 스님의 구도행적이 담겨 있다. 당대의 선지식인 한양 재산 용성 정강스님들과 주고받은 선문답 이야기 등을 통해 경종스님의 큰상의 자취를 대할 수 있다. 언어문화사, 5천원.

출판단신

'불광' 우수잡지 선정
공보처, 종교지 최초

월간 '불광' (발행인 공명)이 지난 19일 개최된 공보처 우수잡지선정 심사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연세대 교수에서 94년도 우수잡지로 선정됐다. 종교계에서 우수잡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정중수어식은 잡지의 날인 11월1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거행된다.

우수잡지 선정은 상업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정서함양에 기여한 잡지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처가 9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94 종교연감 펴내
한국 종교사회연구소

한국 종교연감 94년권이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소장 윤이홍 서울대 교수)에 의해 발간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이야기 한국불교사 I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344면 / 값 6,000원

"구도의 불길에 한 순간도 꺼진 날이 없었던
1600년 한국불교사
이제 그 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이야기 한국불교사 I'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 쓴 책으로 불교도는 물론 일반인, 종교생까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이제까지 발간된 한국불교사 관계 책 중에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누 · 가 · 불 · 교 · 를 · 어 · 렵 · 다 · 고 · 만 · 하 · 는 · 가 ?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유희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유희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유희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한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경봉대선사의 일대기

김현준 지음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연극 한바탕 멋있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경봉대선사.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워준 경봉대선사.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찾아 응직하게 했던 이 시대 최고의 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19면 / 값 4,300원

피부미용의 동의보감

한방피부미용

현의학 박사 송정식 지음

고온 피부,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저자 송정식 박사는 고온 피부를 가꾸면서 불로장생의 삶을 이루는 비결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명쾌하게 수록했다. 아울러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인 기미·여드름·비만증·대머리·원미리 등 36가지 피부 트러블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효험이 큰 325가지 민간요법과 처방전을 자신의 전요경험을 토대로 선별, 콤팩트했다.

신국판 / 368면 / 값 6,500원